

금융권 '성차별인사' 여전

'새인사제도' 고수... 호봉·승진 불리

노사합의 없이 개선안 발표도 불씨

은행, 보험, 증권 등 제1·2 금융권의 성차별 인사제도 개선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노동부가 제1금융권에 대해선 지난 3월말까지, 제2금융권은 5월말까지 성차별 인사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회사대표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법조처하겠다고 강경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1 금융권은 지난 4월7일까지 인사제도 개선작업을 마무리했으나 제2 금융권은 지난 5일까지 전체의 20% 가량만이 개선안을 노동부에 보고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개선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제2 금융권 가운데 노동부에 보고한 곳도 비씨카드 등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인 내용을 보고해 직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보고 내용이 여성은 대리까지만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남자 고졸사원의 초임호봉을 여자 고졸사원의 초임호봉으로 하향조정해 기존 직원의 임금 남녀차별은 여전한 것 등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사무금융노련 광태원 사무처장은 "회사가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보고한 것은 반려돼야 한

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선안을 반려하겠다고 밝히긴 했으나 29일 현재 회사쪽의 일방적 조치로 마찰이 일고 있는 제2 금융권 가운데 개선안이 반려된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꼭 처장은 지적했다.

한편 인사제도 개선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제1 금융권의 경우도 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외견상으로는 단일호봉제이지만 여직원들은 여전히 같은 경력의 남자직원보다 호봉이 2~4호봉 낮고, 경력을 100% 인정받지 못한 상태라 여직원들의 불만이 크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급여만 단일호봉으로 바꾸고, 직급은 종합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은행쪽이 도입하려는 새인사제도는 또하나의 성차별적 인사제도라며 노동조합은 지난 4월초 김명수 총재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28일 오후 신관 로비에 서 '인사제도 개선 촉구대회'를 열고 이 제도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은 노조는 은행쪽이 30일까지 이 제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7월1일부터 철야농성을 벌이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여 92.12.18

“4천여 여직원에게 확실한 전망 보여줄 터”

출장소장을 포함한 직원 9명 전원이 여성으로 짜여진 은행 점포가 문을 열었다.

서울신탁은행이 최근 강남구 개포동에 '레이디 점포'를 열어 주부고객들에게 파고들고 있다.

초대 출장소장으로 임명된 김혜자(56) 씨는 “내 집처럼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은행을 만드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며 “여성의 위력을 심분 발휘해 보이겠다”고 열의를 보인다.

레이디 점포가 문을 열기까지 은행내에서는 ‘여성들은 조직력과 책임감이 약하다’는 우려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4천여 여직원들에게 확실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에 김 소장은 요즘 연일 잠을 설친다.

개포동 출장소에는 특이하게 아동문고 및 지역주민을 위한



▲서울신탁은행 레이디점포에서는 지역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왼 나래 김혜자 소장.

문화공간이 1백여평 규모로 자리하고 있다.

김 소장은 “마땅한 회의나 모임장소가 없는 아파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부녀회나 동반장회의 장소 등을 제공함으로써 ‘문턱 낮은 은행’, ‘내집 같은 은행’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힌다.

출장소가 개소된지 3주 남짓

만에 아동문고나 회합 장소 이용률이 예상보다 높아 일단 성공적인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주부 고객들에게도 부드럽고 친근감있는 은행이 되는데 성공했다”고 말하는 김 회장은 “여성의 타고난 성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여는 은행보다 높은 성과를 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그의 전망은 35년간의 은행원생활을 통해 나름대로 터득한 산지식에 기초하고 있는 셈.

“어디에 투자를 좀 하고 싶어도 주부들은 경제나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는 공연히 주눅이 들어요. 잘 모른다는 거죠. 이럴 때 여성인 상담원과 얘기를 풀다보면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더군요.”

이 점에 착안, 앞으로 이 출장소에서는 1개월에 1회씩 금융강좌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공회의소 내의 광주은행과 구의동 현대아파트 내의 외환은행 개포동의 서울신탁은행 등 여성점포가 3군데다.

서울신탁은행에서 최초의 여성 출장소소장인 김혜자 씨는 57년에 진명여고 졸업후 졸업은행의 일을 해온 베테랑. 결혼 각서제 폐지 후 최초의 여성 대리가 된 것으로도 당시 화제에 올랐던 인물이다. (순)